

# 군산 배경 영화 촬영 START

### 시, 10일 정인봉 감독 영화 '질투의 역사' 군산에당서 촬영 시작으로 크랭크인

최근 군산 내항 및 원도심 일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촬영이 이어지며 군산시가 영화촬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 적극적인 영화 촬영 유치활동의 성과로 또 하나의 군산 배경 영화가 촬영을 시작한다.

군산시는 오는 10일 정인봉 감독의 영화 '질투의 역사'가 군산예술의전당에서의 촬영을 시작으로 크랭크인 한다고 밝혔다.

영화 '질투의 역사'는 다섯 명의 남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질투를 담은 이야기로,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와 2017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길'을 선보여 높은 관심을 받았던 정인봉 감독의 차기작이며, 오지호, 남규리 등의 주연 배우를 비롯해 조한선, 김승현, 장소연, 톱모델 송해나와 원로배우 송재호 씨가 출연해 한층 깊이 있는 영화의 완성 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영화 '질투의 역사'는 군산시가 진행 해온 적극적인 영화 유치활동의 성과로써 군산예술의전당을 비롯한 고우당 등 군산의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는 건물들과 군산시립예술단의 오케스트라 연주장면이 촬영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군산이 영화촬영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로케이션 여건이 우수한 도시로서 대·내외적 위상을 확립하여 국·내외 많은 영화들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영화 촬영이 지역을 알리는 홍보효과로 나타나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련 영화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전주영상위원회(전북도 내 영화·TV드라마 촬영장소 추천, 섭외, 영화세트장 지원 등 영화촬영 로케이션 총괄 운영)와 ▲영화촬영 유치활동 협력 ▲촬영장소 섭외·협업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상생협력 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0월부터는 군산 현지 영화촬영시 숙박비 등 체재비를 지원하는 '영화 로케이션 지원제도'를 시행 중으로, 이는 해마다 지원되는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에는 서천군과 함께하는 군산-

서천 역사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문화예술과 내에 영화촬영유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인봉 영화감독은 "천혜의 비경과 우수한 문화관광지원을 보유한 군산에서 촬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해준 군산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영화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군산시의 촬영명소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영화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은 1948년 이만홍 감독의 영화 '뚱이진 항로' 촬영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30편의 영화가 촬영되었으며, 올해에만 대영기획사가 제작에 참여하는 영화 '열력', '게이트', '미야왕' 등 총 18여편의 영화 촬영이 진행되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아트·핸드메이드페어 성료

### 김대리 갤러리 방문객 눈길 사로잡아

도내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축제인 '군산아트페어&핸드메이드페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아트페어 및 핸드메이드페어 152개 부스에서 국내외 작가 300여명의 작품 총 1,000여점을 선보였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군산아트페어&핸드메이드페어'는 작년 대비 2배인 1만 여명의 관람객이 전시를 찾으며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미술작품은 총 150점이 판매되고 액수는 2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30만원 소액작품 전시인 '김대리 갤러리'는 저렴한 가격과 젊은 층을 공략한 SNS 인증샷 선물 이벤트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인기리에 30여점이 판매되는 큰 호응을 얻었다.

문음목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문화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져 보람 있고 기분 좋은 성과를 올렸다"



며 "올해의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좋았던 부분은 내실을 다져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북 최대 규모 문화예술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군산아트페어&핸드메이드페어'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갤러리 및 외국 작가의 참여로 전시 구성과 내용이 보다 다채로워졌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핸드메이드페어를 동시에 개최하여 아트페어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김판곤 기자



## 다문화·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문화적 동질성 갖자

순창지역 청소년들로 구성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11일까지 부안청소년수련원서 '행복한 예술캠프' 열어

순창 지역 40여 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가 9일부터 11일까지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제1회 행복한 예술캠프'를 갖는다.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는 이 지역의 다문화·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고자 지난 6월 창단, 이를 위한 전통예술교육 및 국악연주의 기회를 마련해 오고 있다.

창단 이후, 국악원 강사들은 매주 2회 순창을 방문하여 가야금·거문고·해금·아쟁·대금·피리·타악·사물놀이·신디·판소리 등의 수업을 가져왔다.

'일곱무늬 꽃송이들의 왓지저컬 놀이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선 전통예술교육과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캠프는 예술교육 집중 훈련을 통한 실력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행복한 예술캠프는 파트별 개인레슨과 국악오케스트라 합주, 판소리 및 사물놀이 교육을 통해 연주 임상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태문화체험, 김승환교육감 특강, 클라이밍 즐기기 서커스 공연관람, 풍등 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소속 10명의 단원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순창군(군수 황숙주)·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수)·순창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상은)이 운영을 맡아 캠프를 진행한다.

국악원 관계자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 문화예술이 가진 따뜻한 사랑을 나누길 소망 한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 홍보마케팅팀장에 김보람씨 임명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홍보·마케팅 팀장에 김보람(33·사진)씨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신임 팀장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출신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광고 프로덕션과 커뮤니케이션 대행사에서 영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으며, 민간경력자로 공직에 발탁돼 헌법재판소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거친 홍보·대외협력 전문가다.

그는 2006년 뉴욕대(NYU) 티시예술대학 연수시절 연출한 단편영화가 KBS 추석특선으로 방영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제38회 피비우로 국제광고제 학생부 본상, 부산국제광고제 영스타즈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직접 기획한 국방부 홍보캠페인이 청와대 정책홍보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해은 기자

지역청년문화축제 '흥·청·망·청' 11일 오후 이중호수 수변공원에서

문예공작소 판소리극 '화용도' 창작국악극페스티벌 초청작 선정

인후문화의집(관장 고미숙)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이중호수 수변공원에서 '흥·청·망·청' 지역청년문화축제를 연다.

'흥나는 대로 놀아라 청년야, 망해도 괜찮아 청춘이니까'라는 주제로 열리는 '흥·청·망·청' 축제는 청년들이 생활문화를 만들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취지의 지역문화전문인력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생활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인후문화의집이 주관한다.

이날 공연에선 Bridge(밴드), CIELO(R&B Hip-hop), JOYFUL(아카펠라), JJ-드림라인, W-crown(댄스), 갱스타(색소폰), 산울농악대, 아리랑(무지컬) 등 청년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를 만나 볼 수 있다.

문화의집 관계자는 "각자 다른 장르의 청년들이 모이는 축제"라며 "공연으로 하나 되는 흥겹고 즐거운 놀이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문화예술공작소(대표 안현빈)의 판소리극 '화용도'가 2017창작국악극페스티벌의 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오후 8시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무대에 오른다.

'화용도'는 판소리 적벽가를 소재로 전쟁에 집집된 다섯 병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젊은 전통예술인이 주축이 돼 펼치는 공연은 극작과 연출, 소리와 연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냄으로써 전통예술에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연 연출가 발굴 공모와 전북문화관광재단 2017무대지원사업 페스티벌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창작국악극 페스티벌은 전통에 입각한 새로운 형식이나 내용을 선보이는 독창성 있는 작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우수한 공연들을 초청해 오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고즈넉한 여유가 있는 명품 한옥으로 떠나는

# '가을 힐링 여행'

짙어서 더 아쉬운 계절, 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남원예촌 by 컨싱턴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남원예촌 by 컨싱턴은 이랜드 호텔레저 사업부와 남원시가 함께 선보인 명품 한옥으로, 화학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로 문화재 명정이 공평하다 훈을 담아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 기품 있는 한옥의 멋이 느껴집니다. 코골에 달는 나무, 흙냄새와 새들의 맑은 노랫소리, 창가에 스미는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머물 자체가 휴식이 되는 남원예촌에서 비움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가을의 운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원예촌

남원시